



##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울트라 싰 투르비용 핑크 골드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대표하는 남성용 마스터 컬렉션이 올해 마스터 울트라 싰 투르비용 핑크 골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여 더욱 풍성해진 라인을 선보입니다. 초창기 울트라 싰의 계보를 잇는 이 타임피스에는 간결한 실루엣의 독특한 매력으로 워치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원형 케이스와 유니크한 인덱스, 고급스러운 도피네 핸즈가 장착된 이 모델은 시계 뒷면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78G의 매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유려한 원무를 펼쳐보이는 투르비용과 움직이는 티타늄 케이스 역시 세련된 터치를 더해줍니다.

### 조화로운 디자인

마스터 울트라 싰 투르비용의 에그셸 다이얼에는 한층 더 커진 슬림한 디자인의 골드 마감 인덱스가 새롭게 장식되어, 최상의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6시 방향에서는 인덱스 대신 투르비용이 골드 브릿지가 장식된 실루엣과 함께 놀라운 장관을 연출하고,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선레이 브러싱이 돋보이는 플레이트는 시계 뒷면에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합니다. 궁극의 섬세함을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시계의 디테일과 피니싱은 앞면과 뒷면, 어느 각도에서나 감탄을 자아내며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으로 안내합니다.

### 최상의 정확성

10.77mm의 슬림한 두께가 돋보이는 마스터 울트라 싰 투르비용의 새로운 케이스에는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78G가 탑재되었습니다. 피니싱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은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는 4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6시 방향의 큰 창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투르비용은



섬세한 기어 트레인으로 이루어진 매혹적인 실루엣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계의 심장부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무브먼트는 공기처럼 가벼운 자태로 시계에 정확성을 선사합니다.

### **궁극의 절제미**

핑크 골드 버전으로 출시된 마스터 울트라 싰 투르비옹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균형미를 연출합니다. 섬세한 핸즈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덱스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투르비옹의 정교한 부품들과 우아하게 어우러집니다. 손목에 편안함을 선사하는 브라운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은 간결한 핑크 골드 케이스, 에그셸 다이얼과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연출하며 놀라운 기술력과 대담한 독창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 매뉴팩처의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예술가, 장인들은 설립 초기부터 황금룰에 따른 뛰어난 타임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정밀한 시계’라는 문장 안에는 1907 년 출시된 예거 르콜트르의 첫 번째 울트라 싰 시계에서 영감을 얻은 마스터 울트라 싰 컬렉션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 **마스터 울트라 싰 투르비옹**

크기: 40mm

두께: 10.77mm

칼리버: 978G – 오토매틱

케이스: 핑크 골드

방수 기능: 5 bar

기능: 시/분, 투르비옹(초 포함)

파워 리저브: 45 시간

다이얼: 에그셸, 골드 마감 아플리케 인덱스, 도피네 핸즈

케이스백: 오픈

레퍼런스: Q1682410



---

##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 창립자 앙투안 르쿨트르로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최첨단 컬렉션들을 제작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트모스와 같이 수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

[www.jaeger-lecoultre.com](http://www.jaeger-lecoultre.com)